제8강, 해체의 뒤안길 Ⅰ-2

－동서 비교의 □다름□에서 □사유의 유사성□으로

(1교시)

＊ 왕필의 『노자』 해석

－?王弼注?와 ?郭象注?의 채용: 자연(自然)과 양행(兩行)의 논리(비동시성의 동시성)

1) 『노자』에 대한 **왕필**의 주

□아름다움□(美)이란 사람의 마음이 나아가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추악함□(惡)이란 사람의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기쁨과 노여움과 같은 것이고, 좋음과 좋지 않음은 옳음과 그름과 같은 것이다. 기쁨과 노여움은 그 뿌리가 같고, 옳음과 그름은 그 나오는 문이 같다. 따라서 어느 한 쪽만을 들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는 □스스로 그러한□ [인간의 정을] 나열한 것이니 어느 한 쪽만을 들 수 없는 □상대적 개념□(名數)들이다.(?老子注? 2.1: **美者, 人心之所進樂也; 惡者, 人心之所惡疾也. 美惡猶喜怒也, 善不善猶是非也. 喜怒同根, 是非同門, 故不可得而偏擧也. 此六者, 皆陳自然, 不可偏擧之名數也.**)

⇒ 차이의 말소. (어두움 속에서 같아짐 **玄**의 차원을 강조: 후대에 권모술수의 전략으로 비판되기도 함)

2) **곽상**의 해석

대저 스스로는 옳다하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것, 자신은 아름답다고 하고 남은 추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이든 모두가 그렇지 않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옳음과 그름에 대한 태도는 비록 다르지만 남이나 나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나 나나 이미 자신에 대해서는 옳다고 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며, 또한 서로에 대해서는 그르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齊物論注? 23, 36: **夫自是而非彼, 美己而惡人, 物莫不皆然. 然故是非雖異, 而彼我均也... 彼之與我旣同於自是, 又均於相非.**)

⇒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선명한 대비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自然이다. (장자, 兩行)

※ 참고: 왕필은 □一□(無在於一)을 강조하고, 곽상은 명분을 정당화한다.(대저 크고 작음이 비록 다르다해도 스스로 얻은 신분적 공간에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각각 제 본분(性)에 맞게 되고, 일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각각 제 분수를 감당하게 되니 소요하기가 매한가지가 될 터인데 어찌 그 사이에 이기고 짐이 끼어 들겠는가! ?逍遙遊注? 1: **夫小大雖殊,**

而放於自得之場, 則物任其性, 事稱其能, 各當其分, 逍遙一也, 豈容勝負於其間哉!)
⇒각자가 주어진 몫에 해당하는 삶을 산다면, 각각 그 행복의 양은 같다. (전체주의적 사유)

* 풍우란의 추상계승법: 시간이 지나도 전통 철학의 객관성과 논리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일원론적 환원주의(자본주의/도구주의/소유의 절대성/자유주의/돈의 절대성, 사회주의/집체주의/역사변증법/절대권력의 힘)에 대한 비판의 논리로서 도가 사상이 지닌 의미

☞ **근현대성에 대한 각성제이자 21세기 사유의 틀을 놓을 수 있는 설계도(김영효)**

(2교시)

4. **데리다의 우상파괴론**: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을 망치로 깨뜨리는 해체의 전략
: □영원한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은 사람을 철학으로 인도하는 가장 심층적인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다.□-**러셀의 『서양철학사』** 중에서

-영원한 실재를 찾아서: 자연철학자들의 □아르케□(arche), 피타고라스의 초감각적이며 가지적인 수(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eidos): 변화와 운동의 거부

☞ **따라서 흐름과 생성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세계는 영원불변의 기초를 위해 초월된다.**

-예: **훗설 현상학의 영원한 현전의 형이상학의 모순**

1) 훗설의 전제: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근거에서 성립-□지금 이 순간의 영원한 현전□
2) 담배 연기의 피어오름(지각된 현재의 현존)은 비현존과 비지각과의 결합으로만 가능
3) 피어올라가는 연기의 지각은 추상적 일점이 아닌 흐름과의 연속에서 가능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대라는 비지각과 비현존에 의해 차연의 운동에 의해 지금 이 순간의 구성이 가능해진다→흔적에 의한 **차연**의 도입)

-이렇게 보면 **변화**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차이의 흔적, 차연의 운동으로서 자아의 자기동일성은 깨어짐: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

-노장사상이 왜 유행하는가? - 다양성의 논의. (□해체론과 맞느냐?□는 여러가지면에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5.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

－본체론(本體論)과 본말론(本末論) ↔ 실체론(實體論)과 이원론(二元論)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 해체의 바깥은? □문화성/역사성/현재성□

－왜 데리다는 프랑스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프랑스 바깥에서 환영받는가?

－우리에게 □근대성□이란 무엇인가?